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교육세 부담 불뚝

교육세, 연간 광주 20억·전남 29억 실질적 감액

교육활동비·환경개선 등 차질 “국고로 부담해야”

정부와 국회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국고 전입금이 아닌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로 분담토록 결정해 광주와 전남에서만 매년 50억원 가량이 실질 교육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국고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에서 부담토록 결정했다.

내국세의 20.27%와 목적세인 교육세 전액으로 이뤄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위해 쓰여지는 돈으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책임진다는 원칙에 위배된 셈이다.

정부와 국회의 기습적인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광주가 20억원, 전남이 29억원 등 연간 50억원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가 국고로 직접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분담하는 구조여서 그만큼 교육활동비와 환경개선비 등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방침이 매년 되풀이될 경우 교육청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도교육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에 돌아가야 할 재원(보통교부금)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기 위한 조세로 국가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예산 삭감을 막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지원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정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100’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출산을 감소로 유치원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80’만 유치원에 쓰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로

돌려 사용하라는 식”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교부세 재원 감소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국회 방

침에 반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이 과정에서 갈

등과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벌어졌던 2015년과 2016년 ‘보육 대란’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설 구호품 배달합니다”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명교회 주차장에서 열린 ‘구세군 대구·경북지방 설 구호품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구호 물품을 옮기고 있다.

전남 초·중생 예비소집 불참 1명 소재 파악 안돼...경찰 수사

전남 공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1명이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남경찰청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취학예정자 가운데 불참 아동은 모두 461명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불참아동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457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했다.

이들은 취학이 유예되거나 면제·연기·해외 출국, 병입 입원, 대안학교 진학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재파악이 안된 4명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16일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중 2명은 베트남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며 출입국관리소 확인결과

지난해 12월에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지 가족과 만났는지 여부 파악이 안되고 있어 도교육청은 취학을 유예할지, 면제할지, 베트남 현지 학교로 취학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예비소집 불참자 1명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명의 소재가 현재 불분명 한 상태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호적에 등록돼 있지만 현재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이의 실 거주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범죄 연관성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은 4명 중 3명은 파악됐지만 1명이 소재파악이 안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초·중 예비소집 불참자 828명에 대한 소재 파악은 지난 18일 모두 완료됐다.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실시된 취학 전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 아동 1만5275명 중 828명이 불참했으며, 유선전화와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불참 아동 모두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올해 광주 공립 초 신입생은 1만 5400여명, 전남은 1만64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정환 기자



‘광주형일자리 빙자’ 투자사기 60대 구속

광주형일자리 관련 사업을 함께 하려고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같은 동호회 회원인 B(64)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기업 문서를 허위로 꾸며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이다. 현지 광주시청과 공장에정부지를 소유한 기업인으로부터 광주형일자리 유관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장이나 거론된 제계인사와 친분이 없는 A씨는 허위로 저장된 전화번호를 보여주거나 통화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기업 주주총회 합의서와 거액의 수표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행세를 이어갔다.

중국에 실존하는 기업은 광주형일자리 관련 투자계획이 없으며 한국법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업의 외자유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거짓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수법으로 B씨의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광주형일자리 사업 개요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서 비행에 이용했다. 가로챈 돈은 유혹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화 왜 안받이’ 폭력 휘두른 20대 조폭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지인에게 수년 간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폭행)로 조폭조직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세탁소 앞 인도에서 B(26)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력조직 구성원인 A씨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불러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약속한 시간에 늦었다”, “때리려는 행동에 반응이 없다” 등의 이유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겸인업체 기사로 일하는 친형의 직장동료 B씨를 형의 소개로 알게 된 뒤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성 2인조 금은방 절도범 검거

보성에서 금은방 절도행각을 벌인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서는 22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3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 4시55분께 보성군 보성을 한 금은방에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출입문과 진열장을 둔기로 부수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보성=안구일 기자

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멧돼지 출몰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지만 포획에 실패했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9분께 도로에서 엄청 큰 멧돼지가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쪽으로 뛰어오르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아파트 일대를 수색해 지하주차장에서 멧돼지를 발견했지만 포획에는 실패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 차량 1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